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90826 박태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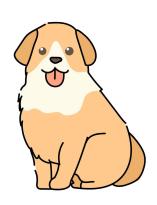
셀프 디지털 드로잉 포트폴리오

셀프 디지털 드로잉을 선택한 이유

- 게임 개발에 필요한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로 표현하기 위해
- 클립 스튜디오, 블렌더 등 다양한 툴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서
- 미술 교양도 한 번쯤 듣고 싶어서

• <u>내가 이렇게 창의력이 없을줄 몰라서</u>

3주차 자연스러운 드로잉-연필



-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했다.
- 왜인지 모르게 색칠이 안되서 곤란했다.
- 이정도면 따라가기 괜찮네 싶었다.
- 강아지 귀여워

4주차 자연스러운 드로잉-브러시



- 이전까지 아트 계통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웠다.
-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부분에서 일러스 트레이터를 사용하는 구나 싶었다.
- 조금만 추가해서 결과가 예쁘게 나오니 '나 잘하네?' 싶었다.

5주차 라이브페인트



- 라이브 페인트 기능 찾는데 한참 걸렸다.
- 조금씩 실습 따라가기 힘들어진다.
- 그래도 여차저차 만들어서 만족스 럽다.

6주차 문자, 3D 문자 & 입체 타이틀





-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포스터에 쓰이는 디자인 기능이라고 생각했다.
- 색 배합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는 아쉬움이 든다.
- 다양한 기능이 많고 실용적이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었다.

7주차 3D 문자 & 입체 타이틀/블렌드





- 정말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들었다.
- 캔디 단어, 배경에 파란색이 진짜 별로다.

 항상 따라가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번엔 최대한 다양한 느낌 주려 고 노력했다.

9주차 블렌드 기능, 왜곡하기





- 오묘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.
- 블렌드 기능이 포스터나 다른 그림 들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 같다.
- 좀 더 새롭고 배경에 맞는 내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.
- 계속 실습 따라가기 바빴다.

10주차 왜곡하기, 타이포그래피 연출















- 구름 이미지에 맞춰 둥실 둥실 두둥실을 넣었다.
- 하늘의 느낌을 주려고 파란색 계통을 사용했는데 채도가 더 낮은 색으로 했어야 됐다.
- 왜곡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몬스터 별로 다양한 컨셉을 정하려고 했다.
- 중간부터 그냥 재밌어서 뭉게버렸다.

11주차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연출, 클리핑 마스크와 컴파운드 패스

SOLD OUT

 수업을 빠지게 되어 집에서 따로 작 업했다.

• SOLD OUT을 감싸는 사각형을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.



• 다람쥐를 4등분해서 머리, 팔, 다리, 꼬리로 나누어 작업했다.

다람쥐에서 가을이 떠올라 따뜻한 색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.

12주차 그래프





-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에서 내 창의력에 절망했다.
- 뒷면에 꽃을 넣고, 트리에 쓰인 눈가루(?)를 깔았다.
- 크리스마스에 I를 인형으로 바꿔봤다.
- 일러스트레이터로도 그래프 표현을 할 줄 몰랐다.
- 발표에 필요한 재밌는 그래프를 만들기 에 다른 프로그램보다 좋을 것 같다.

13주차 다양한 효과 기능 활용





- 예쁜 사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서커스 하는 사자가 됐다.
- 사람 옷을 바람에 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.
- 그런데 얼굴이 웃고 있어서 어색해졌다.
- 벌써 뱀띠해가 됐다. 나이 먹기 싫다.

14주차 다양한 모양의 글상자 활용, 리플렛 디자인





실제로 사용하기 좋은 기능의 총 집합이었다.

리플렛 디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한 주차이기도 하다.

카드 뉴스











올해 다시 보기 시작한 야구팀이 마침 우 승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가 가장 잘 맞는 다고 생각했다.

기아 타이거즈와 선수 유니폼의 색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색은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하여 칠했다.

펜 기능을 활용하여 선수 그림을 그렸고, 참고한 선수 사진을 그대로 클리핑 마스 크 기능으로 그림의 뒷 배경으로 사용했다.

인스타그램 카드뉴스 규격에 맞춰 제작했 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우승의 의미와 선수 들의 기록, 별명을 # 해쉬태그로 표현했다.

기아 타이거즈 화이팅!